

이라크 전쟁의 전개방향 전망

□ 단기전 전망 우세

-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시의 최후통첩 시한(한국시간 3월 20일 오전 10시)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세로 전쟁은 단기간에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됨.
- 전쟁기간도 3~4주의 전망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10일 정도의 超단기전도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반대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도 예상할 수 있으나, 미국과 이라크의 군사력 차이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아랍과 회교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전쟁을 반대했던 많은 나라에서 전쟁반대 여론과 반미감정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임.

□ 공습으로 시작

-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육상공격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미국은 이번 전쟁도 강력한 공습으로 시작할 것이 확실시됨. 그러나 공습기간은 1991년 걸프전 당시 39일간 지속되었던 것에 비해 극히 짧은 2~3일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개전후 24시간 동안 B-2, F-117 등의 전폭기와 크루즈 미사일 공격 등 3,000발의 포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이 공습을 위해 미군 1,500대와 영국군 70대의 항공기가 걸프만 지역에 대기하고 있음.

- 공습에 이어 본격적인 육상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쿠웨이트 방면에서만 미군 15만 명과 영국군 2만 5000명이 동원될 예정임.
- 한편, 6만 2,000명으로 터키를 통과하여 이라크 북부를 공략할 계획은 터키 의회의 승인지연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도 작전수행을 위한 병력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 엄청난 전력상 우위 확보

- 공중공격 능력을 포함한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우위로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고 할 수 있음. 지난 걸프전 당시에 비해 미군의 전술적 작전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됨으로써 미국과 이라크의 전력 격차는 더욱 벌어졌기 때문임.
- 지난 1991년 당시 레이저 유도폭탄(laser-guided bomb: LGB)을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전체의 18%였으며, 이라크에 쏟아 부은 20만 발의 폭탄 중 LGB는 4%에 불과했었음. 이에 비해 지난 2001년 아프간 전쟁에서 사용된 1만 4,000발의 폭탄 중 60% 이상이 LGB였으며, 목표 적중률도 90%를 넘었음.
- 항공기 성능 개선으로 아프간 전쟁에서는 38대의 폭격기로 160개의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었으나, 동일한 공격효과를 거두기 위해 걸프전에서는 약 450대의 전투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5,000명의 병력, 탱크 2,000대, 개인중화기 3,500문, 방어용 레이더장비 50기, F-1과 Mig-29를 포함한 전투기 300대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상당수의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이라크의 재래식 군사력은 10년간 지소된 미군이 경제체제인 군사적 공격으로 인해 60%나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쟁의 전개방향

- 후세인의 방어전략은 대부분의 영토를 포기하고 바그다드와 티그리트 등 핵심거점을 사수하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1주일 내 이라크 영토의 75% 이상을 점령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취한 뒤 마지막 단계로 바그다드의 포위와 함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약 7만 명의 정예 공화국수비대가 3개 부대로 나뉘어 바그다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2만 5,000명의 특수수비대 요원들은 시가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바그다드 공략시점에 전투가 가장 치열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규모 희생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각종 장비와 통신능력 등에서 앞선 미군을 상대로 하는 시가전이나 게릴라전도 한계가 있어 바그다드의 최종 함락도 시간문제일 뿐임.

□ 전쟁 진행의 불확실성

- 후세인의 거취는 망명, 자살, 결사항전 등 몇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결사항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상황에 몰릴 경우, 후세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 유전지대 방화, 미군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민간인 학살, 생화학무기 사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가능한 한 이 지역 전체의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 공격도 감행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로 인한 전선의 확대, 과도한 민간인 피해 발생 등은 반전여론을 확대시켜 미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사막의 모래바람과 무더운 날씨 등의 자연조건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되고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